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이 되던 해 둘째 달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6:1).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마는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장3절에서도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평안이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비로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4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5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또한 어느 특정 건물에 갇혀 계실 분도 아니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8:27)"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신명기 12장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특별한 장소를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신12:13-14).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며 또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백성들을 속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분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12-13절에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도 그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분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의 크기를 보면 그다지 웅장하거나 거대한 규모의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육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습니다(6:2).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계산하면 길이는 약 27미터, 너비는 약 9미터, 높이는 약 13.5미터였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75.6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현관에 해당하는 낭실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6:3).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길이 9미터에 너비 4.5미터 정도의 12.6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물과 그 앞의 현관을 모두 합쳐도 88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3층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총 건평은 대략 265평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 넓고 웅장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1절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시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

답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6:12-13)."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사실 성전 건물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요2:21). 또한 성도들이 곧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고전6:19).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남쪽 유다가 패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느브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25:9). 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 버리고 성전 건물이라는 것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물이 있는 한은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7:3-4)."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물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

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성전 건물이라도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분의 계명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